

尹-韓 재·보궐 선거 후 독대... '김여사 해법' 찾을까

제2부속실 복원·의정 갈등 해소 건의할 듯... 당정관계 전환점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르면 오는 16일 예정된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독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를 통해 대통령께서 한 대표와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며칠 전 수용했고, 한 대표가 현재 재보선 지원 유세로 바쁜 만큼 선거 이후 만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김 여사 문제를 연결고리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공식 석상에서 공개 거론하고 나선 상황을 시급히 풀어나지 못한다면 자칫 여권 전체가 큰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한 친한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모처럼 독대가 성사된 만큼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다 하게 될 것"이라면서 "김 여사 이슈가 비중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잠정 중단'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건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최근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관련 의혹들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만이라도 김 여사가 외부 활동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 대표 본인도 전날 부산 방문에서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드러냈을 정도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외부 활동 자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김 여사의 공적 활동을 정부 시스템 안에서 관리할 제2부속실 복원 약속을 하루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건의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또 의과대학 증원을 위시한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벌어진 의정 갈등을 해소할 방안이 대안에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대표는 자신이 제안해 추진 중인 '여야 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보다 전향적 태도로 유인책을 내놓고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 회동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만찬에서의 독대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당시 대

통령은 만찬이 새 지도부를 전체적으로 격려하는 자리인 만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내부와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한 대표가 당시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만찬 회동에 앞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 불쾌감을 드러내 이른바 '윤-한 갈등설'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친윤계 의원들은 "언론 플레이나", "비공개로 요청해도 될 일을 왜 미리 공개했나",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려는 의도 아니냐" 등 노골적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행안위, 명태군·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명태군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명태군 당원연락처 유출' 의혹 조사

지난 대선 기간 57만명에 여론조사...한동훈 '검·경 수사 촉구'

국민의힘은 10일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전화번호 약 57만 건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군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서법수 사무총장은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명단에 대해 "대선 선거 기간에 선거 운동을 하라고 중앙당에서 당원 명부를 안심번호로 만들어서 각 선거캠프,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에게 다 적법하게 배부했다"며 "전혀 위법한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 명부가 그 이후나 경선 기간

중에 명태군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56만 8000여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명씨에 대해 "지금 명태군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명태군, 김대남 씨 같은 협잡꾼, 정치 브로커들이 정치권 뒤에서 음흉하게 활개 친 것을 국민들은 몰랐을 것이다. 저도 몰랐다. 전근대적인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런 구태 정치를 바꾸겠다"며 "지금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협잡꾼이나 정치 브로커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된 분들은 당당하고 솔직하게 모든 걸 밝히라"며 "이런 정치 협잡꾼에게 대한민국 정치가 휘둘리고 끌려다녀서야 되겠냐"라고 반문했다.

국가유산청이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담 건설 계획 수립과정에서 후보지에 대한 문화재 파악 등 부처간 협의조차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여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국가유산청에 요청한 환경부 기후대응 담 건설 계획 수립과정 국가유산청 협의자료 제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했다. 또 담 건설 후보지 주변 국가유산 실태 자료도 요구했지만 '담 건설 계획을 알 수 없어 확인 불가하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국가유산청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기후대응담 후보지(안)의 행정구역과 하천명으로 검토 시 영향 미칠 것으로 보이는 국가유산은 천연기념물인 '부여 청양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한 곳만 파악했다.

하지만 조계원 의원이 담 건설 후보지 14곳

평균 3.48%에 도달해야 했으나, 전체 2.15%에 그쳤다. 2023년의 경우 의무고용률은 3.6%였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4.4%), 건설기계연구원(3.65%), 식품연구원(4.23%), 김치연구원(3.8%), 기계연구원(4.06%) 등 출연연 5곳만 의무고용률을 준수했다. 22%만 의무고용률을 지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출연연의 의지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계원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채용 대신 장애인 고용의무를 분담금으로 대체하는 관행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우리 헌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명시돼 있는 만큼, 출연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차원에서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한 출연연에 대해 장애인고용계획 제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은 "국가유산청은 시급히 담 건설 후보지 지역 인근 문화재 실태 파악과 안전한 보전관리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내년도 재정계획에 실행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채용 대신 장애인 고용의무를 분담금으로 대체하는 관행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우리 헌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명시돼 있는 만큼, 출연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차원에서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한 출연연에 대해 장애인고용계획 제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은 "국가유산청은 시급히 담 건설 후보지 지역 인근 문화재 실태 파악과 안전한 보전관리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내년도 재정계획에 실행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 현장

조인철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분담금 대체"

최근 5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 출연연구기관 23곳이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미이행으로 납부한 분담금이 229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이 1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개 정부 출연연 기관 가운데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16개 기관은 녹색기술연구소, 기초연, 생명연, KISTI, 생기원, ETRI, 국보연, 철도연, 표준연, 지자연, 예기연, 전기연, 화학연, 안전연, 원자력, 재료연 등 이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3.8% 이상은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의무 고용 비율은 2018년 3.2%에서 현재는 3.6%까지 올랐다. 매년 일정 비율 미준수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3개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 전체

평균 3.48%에 도달해야 했으나, 전체 2.15%에 그쳤다. 2023년의 경우 의무고용률은 3.6%였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4.4%), 건설기계연구원(3.65%), 식품연구원(4.23%), 김치연구원(3.8%), 기계연구원(4.06%) 등 출연연 5곳만 의무고용률을 준수했다. 22%만 의무고용률을 지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출연연의 의지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인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채용 대신 장애인 고용의무를 분담금으로 대체하는 관행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우리 헌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명시돼 있는 만큼, 출연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차원에서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한 출연연에 대해 장애인고용계획 제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후위기 대응담, 문화재 파악 않고 추진"

국가유산청이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담 건설 계획 수립과정에서 후보지에 대한 문화재 파악 등 부처간 협의조차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여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국가유산청에 요청한 환경부 기후대응 담 건설 계획 수립과정 국가유산청 협의자료 제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했다. 또 담 건설 후보지 주변 국가유산 실태 자료도 요구했지만 '담 건설 계획을 알 수 없어 확인 불가하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국가유산청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기후대응담 후보지(안)의 행정구역과 하천명으로 검토 시 영향 미칠 것으로 보이는 국가유산은 천연기념물인 '부여 청양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한 곳만 파악했다.

하지만 조계원 의원이 담 건설 후보지 14곳

행정구역 일원 대부분에서 30여건의 멸종위기종 서식지 및 천연기념물, 보물,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섬진강 유역 화순지역 동북천 일원에는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유형문화유산 화순동북남덕원비, 전남도기념물 화순동북연둔리숲정자, 문화유산자료 독상리석등, 문화유산자료 동북항교 등이 있다.

조계원 의원은 "국가유산청은 시급히 담 건설 후보지 지역 인근 문화재 실태 파악과 안전한 보전관리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내년도 재정계획에 실행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애고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